



제100회 6월 13일

- ... 본회가 주최한 제 ...○
- ... 100회 발명교실이 지 ...○
- ... 난 6월 13일 발명장 ...○
- ... 러관 연구실에서 개 ...○
- ... 적됐다. 매월 둘째 ...○
- ... 토요일 오후 1시 30 ...○
- ... 분에 개최되는 발명 ...○
- ... 교실은 이 달에도 1 ...○
- ... 백여명이 참석하여 ...○
- ... 심황을 이루었다. 이 ...○
- ... 날 발명교실에서는 ...○
- ... 한국신발명연구소 신 ...○

한국신발명연구소의 신 석균 소장.

발명학회의 회장이기도 한 그를 모르는 발명관계 인은 거의 없을 정도로 신 소장은 발명에 관한한 타 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92년 발명의 날 행사에서 영예의 금탑산업훈 장을 수상했는데 개인발명 가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 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하루 한건 발명〉

이것이 신소장의 신념인데 몇년 또는 몇십년 동안 연구 한 끝에 발명에 성공한 다른 발명가들에겐 거의 환상적인

말이다.

「오늘이 6월 13일인데 제 가 가지고 다니는 이 수첩에 는 6월 18일까지 발명할 내용 이 적혀 있어요. 길거리를 걸 어다니다가 떠오르는 생각들 을 적고 적힌 내용대로 발명 하는 거죠.」

이렇게 발명에 관한한 놀 라운 집념과 재능을 가진 신 소장의 발명생활은 공업 고등 학교를 다닐때부터.

거의 50년에 가까운 기간 이다.

초미니 쏘라 라디오 모자 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공업계 고등학교의 전기과를 나왔기 때문이다.

약 15년전만 하더라도 트 랜지스터 라디오를 휴대하기

위해서는 큰 불편을 감수해야 만 했다.

라디오의 부피와 무게도 그렇고 그에 버금가는 건전지 의 무게 또한 여간 문제가 아 니었다. 거기에서 레시바를 쪼고 다니면 줄이 걸리거려 보통사람들은 휴대하기를 꺼 려했다.

이러한 불편을 느낀 발명 왕 신소장은 즉시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연구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라디 오를 극소화시키는 작업을 세계 최초로 성공하고야 말았다.

무겁고 불편한 건전지 대 신 태양열을 이용한 쏘라셀을 사용했고 모자를 겸한 라디 오 로 만들어 긴 줄의 레시바가 필요없도록 한 쏘라 라디오의

發明教室 成功事例 등 發表

- ... 석군 소장의 성공사례 ○
- ... 발표에 이어 金堯衡 ○
- ... 본회 상근이사의 「발 ○
- ... 명의 창출과 사업 ○
- ... 에 대한 강의와 洪載 ○
- ... 日 변리사의 「산업 ○
- ... 재산권제도 에 대한 ○
- ... 강의와 토론이 있었 ○
- ... 다. 발명가의 성공사 ○
- ... 례를 간추려 소개한 ○
- ... 다. ○
- ... 〈柳泰木 記〉 ○



인기는 대단했다.

신소장은 이 발명품을 가지고 스위스의 제네바로 가서 국제 발명품 전시회에 출품하였다.

당시만 해도 국제 발명전에 출품해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험에 가까운 시도였다.

전시장에 전시를 해놓고 며칠 지나자 어떤 외국인이 현금 1만불을 가지고 와서 팔라고 제의를 하는 등 쓸라 라디오의 인기는 대단했다.

국내에서 미리 권리를 양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여행비 3백만원을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신소장은 팔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기대했던 대상의 영광을 누리지는 못하고 동상으로 만족해야만 했지만 신소장의 쓸라 라디오는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에서조차 모조품이 나

올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제품이였다.

결국 국내에서 2천 5백만 원에 권리를 양도하게 된 신소장.

「세계적인 발명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탄집게를 발명했을 때 그 쓰이는 곳이 어디에 한정되었습니까? 구멍탄을 쓰는 나라만이 그 발명품을 소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듯 세계적인 발명품을 만들어 내는 신소장의 노력 덕분에 그의 발명품을 양도받은 기업들이 수출한 금액이 1천만불 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또한 그가 지금까지 발명한 것은 1회용 우유팩을 비롯하여 신변잡화, 첨단전자분야 등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을 정도다.

발명품도 2,200여건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 발명전에서 56회나 수상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명성만큼이나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토록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오는 동안 신소장이 겪은 실패도 부지기수.

「실패를 한번도 안해본 발명가는 진정한 발명가가 될 수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해본 발명가만이 완벽한 발명품을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커다란 실패를 수없이 겪었기 때문에, 그러나 굴하지 않고 외길 집념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 아닐까?

제1회 발명교실의 강사이기도 했던 신소장이 8년 3개월이 흐른 뒤에 또다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100회 발명교실의 성공사례 발표 시간은 그래서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